

<나의 삶 나의 하나님> **KFC의 시작**

켄터키라는 사람은 큰 꿈을 가지고 사업에 손을 댔는데 쫓딱 망했습니다. 와중에 부인도 집을 떠났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었던 청년은 죽기 위해 술을 잔뜩 먹고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왔습니다. 한참 가다가 맥이 풀리고 힘이 없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해서 수면제를 다 바깥으로 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의식이 깨어난 켄터키는 오히려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링겔을 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금식이 아닌 굶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굶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복도에서 어느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 소리가 너무 흥겨웠습니다. 복도에 나와 가만히 바라보니 흑인 중년 부인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기를 가지고 복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뒤꿈치를 보니 갈라져서 세군데나 동전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초라한 흑인여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흑인에다가 어렵게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리나 하며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돌아서서 걸어오는 얼굴을 보니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 뭐가 그렇게 기쁘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 기쁘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쁜 것입니까?" "그럼, 청년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그 청년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흑인여인으로부터 예수를 영접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병원에서 나올 때 흑인아줌마가 돈을 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길에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위별로 칼로 잘라 튀겼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것은 나만 혼자 먹기가 아까워 들에 나가 팔아봐야겠다 하고 한 마리를 팔아서 닭 세 마리를 샀습니다. 그는 다시 세마리를 요리해서 팔아 아홉 마리를 샀습니다. 점점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써붙여놓고 그때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체인점이 된 KFC입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늘 부르는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고 그는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만들어서 후원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돕는 고아원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교인"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3권 5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2월 30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나이 들면서 드리는 기도



"주님, 주님은 내가 나이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나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변에 생기는 무슨 일이나 한마디를 꼭 해야 된다고 믿는 나쁜 버릇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양 자처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과거의 일들과 쓸데없이 사소한 일들에 맴돌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가 쭈시고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않게 나의 몸도 지켜주소서.

나의 기억력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억력을 비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나도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친절하고 원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는 먹어도 늙지는 않게 하옵소서.

'걸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4:16).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게 하옵소서."

-나이 들어 가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플로리다의 어느 교회 게시판에 있는 글).

(나의 삶, 나의 하나님에서 계속)
1986년에 켄터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 남부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켄터키는 세상을 떠났지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맛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고아원도 양로원, 선교사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일 예 배

(송 년 주 일)

- 영 광 송 Gloria 다 같 이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Calvary" 1절:이예술(violin). 2절:다같이
-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찬 송 Hymn 21장 다 같 이
-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3(계 21장)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 교회학교 졸업
- 찬 송 Hymn 460장 다 같 이
- 기 도 Prayer 김영길 집사
-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3:6-9(신 117) 인 도 자
- 어린 이 시간 Sunday School
- 부부성가대 Couple's Choir 부부성가대
- 설 교 Sermon "귀하게 사용하는 시간" 김성국 목사
- 찬 송 Hymn '456장' 다 같 이
- *헌 금 기도 Offer tory Prayer 인 도 자
-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교 회 소 식



1. 오늘은 송년주일: 어느새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설레임으로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시간과 첫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보내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31일(내일) 밤 11:30 <장소>: St. Davids Church(건너편)
3. 임명주일: 다음 주일은 교회봉사 임명주일입니다.
*작은 일도 조금씩 사랑으로 나누어 섬길 때 모두가 즐겁습니다.
4. *예배방법; 응답송에 변화가 있습니다.
*새해부터 성가대 명칭을 갈보리 "나무 십자가" 성가대로 호칭합니다.
5. 수요일예배: 탐방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금주의 추천 탐방교회: '주님의교회'(수요일 7:30) 544 Mt Eden Rd. Mt Eden.
6. 교회학교 졸업축하: 새로운 과정으로 진학하는 졸업생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졸업 <College> 박은지 <Intermediate> 김정훈, 서지혜 <Primary> 권윤희, 박상배, 이민우, 이예술
7. 1월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6일	신년주일, 성찬식, 직분임명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8일)
13일		
20일	야외예배	
27일	'이삭줍기'봉헌	수요일예배개강(30일)



역수 같이 비가 퍼부는 날! 엔진이 좋은 차도 와이퍼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멈추어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작은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정말 큰 힘이됩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아내의 카드 한 장.... 아내위해 목숨을 내놓으리라 결심하게 만듭니다.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 일 안 내
30일	김영길	노은숙	박상옥, 양경배	김종건, 박상옥
6일	김정미	박일영	김성국, 김시욱	김교섭, 정희자
13일	김종건	송정섭	김교섭, 김영길	정덕수, 김순자
20일	노은숙	신경화	김종건, 박일영	최윤희, 송정섭
27일	박일영	인치혁	인치혁, 유종옥	박일영, 임혜자